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음악과 교육과정의 비교연구

- 중학교의 음악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박 신 미*

목 차

I. 들어가기

1. 문제의 소재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제한 및 범위

II. 양국의 중학교음악과 교육과정의 비교

1. 교육 과정의 변천 연도
2. 음악교육과정개정의 취지비교
3. 음악교육과정의 목표비교
4. 음악교육과정의 내용비교
5. 음악교육과정의 평가의 비교

III. 결론 및 제언

※ 주제어 : 음악과 교육과정, 한일음악교육비교,
중학교음악교육

* 横兵國立大學院(요코하마국립대학원) 音樂教育 修了

I. 들어가기

1. 문제의 소재

한국일본에 있어서 현대의 학생들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양국은 모두 바라고 있다. 인간성 형성에 중요한 추진력을 갖는 예술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은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음악교육과정은 음악 교육의 질을 판가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적 배경과 문제점이 유사한 일본과 한국의 음악교육의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효율적인 음악 수업의 전개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음악교육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배경과 교육의 제도가 유사한 한국과 일본의 음악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고찰한 위에 그것을 효과적인 음악수업의 전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교연구의 방법의 관점으로부터 교육 제도에 대해서 비교하려고 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음악교육을 시찰(視察)하고, 각종의 정보자료를 수집해서 조사연구를 하였다. 가능한 한 면밀하게 기술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음악교육의 정보자료를 역사적, 사회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 수집한 음악교육의 자료를 비교 가능한 형태의 배치, 비교하기 위하여 공통의 틀을 설정해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한국의 음악교육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책(方策)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3. 연구의 제한 및 범위

한일 양국은 공통점과 차이점의 교육과정과 교육조직에 공통된 부분과 상이(相異)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차이점은 역사적인 배경과 경제적인 면으로부터 유래한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교육활동의 기술과 두개의 교육과정의 비교에 관계가 있는 자료만으로 범위를 한정시켰다.

Ⅱ. 양국의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비교

양국의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을 편성의 순서에 따라서 비교분석하였다. 이것이 개정의 취지, 목표, 내용, 지도방법과 계획작성 위의 배려, 평가이다.

1. 교육 과정의 변천 년도

<표 1> 교육과정의 변천 년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한 국	1955년	1963년	1973년	1981년	1987년	1992년	1997년
일 본	1947년	1951년	1958년	1969년	1977년	1989년	1999년

2. 음악 교육 과정 개정의 취지비교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정개정의 중점 비교

양국의 교육목표는 법령에 나타나있는 것을 기반으로 교육한다. 한국은 인간

을 완성시키는 것, 일본은 인격의 완성을 목표로서 양국의 교육목표는 완전한 인간을 목표로하고 있다는 면에서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양국은 모두 21세기를 향한 사회로서 국제화, 정보화, 과학기술의 발전,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고, 고령화 등의 다양한 면에서 크게 변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의 변화를 근거로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교육의 모습을 양국은 찾고 있다.

<표 2>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정개정의 중점 비교

한 국	일 본
1.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이념 : 교육기본법 제2조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간상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다. 폭 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1. 교육의 목적-교육기본법 제1조 교육은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고, 평화적인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로서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근로와 책임을 중요시하고 민주적 정신에 가득찬 심신과 함께 건강한 국민 교육을 기대하며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국	일 본
2. 중학교 교육의 목표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 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가진다. 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경험을 가진다.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마.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익힌다.	2. 중학교 제35조: 중학교는 소학교 교육의 기초위에 심신의 발달에 따라서 중등보통교육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 중학교에 있어서 교육에 관해서는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一. 소학교의 교육 목표를 더욱 충실히 달성하고 국가 및 사회형성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배양할 것 二. 사회에 필요한 직업에 관해서 기초적인 지식과 재능, 근로를 존중하는 태도 및 개성에 맞게 장래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것 三. 학교 내외에 있어서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그 감정을 바르게 이끌어 공정한 판단력을 배양할 것 제38조: 중학교의 교과에 관한 사항은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문부대신이 이것을 정한다

편성면에서 1년간 주수(週數)시간은 한국의 경우는 34주, 일본은 35주로 되어 있다.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나뉘어서 필수교과 뿐만이 아니라 선택교과의 중요성과 선택교과의 수시간도 확대하고 있다. 또 지도면에서는 학생의 수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시행한다. 학생학습자중심의 교육에 중심을 두고, 여유있는 학습과 학습량은 최저로 하고 있다. 양국의 운영은 모두 각 학교의 실태에 맞추어서, 탄력성있는 운영을 한다 등에서 공통적인 생각이다.

한국의 교육은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큰 목표와 지도서는 국가가 결정하고 있지만 편성·운영지침, 학교교육과정은 시·도의 교육청에서 작성하도록 권리를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은 중앙집권형 교육체제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편성에 대해서 필수교과 면에서, 한국은 10교과, 일본은 9교과로 나타나있다. 일본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도덕교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 필수교과에 들어가지는 못하였다. 도덕 및 특별활동으로 구별되서 각 학교에 있어서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택해서 지도할 수 있다. 선택교과 면에서는 한국보다 일본의 선택교과의 경우는 종류를 확대하고, 전교과에 대해서 선택교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간 70단위시간의 범위내(1학년에 대해서는 연간 30단위시간의 범위내)로 되어 있다. 한국의 선택교과보다 교과 선택의 폭이 넓게 제시되어 있다.

<표 3> 한국과 일본의 교육과정 편성 비교

한 국	일 본
1. 편성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은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한다. 가. 교과: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나. 재량 활동 - 교과 재량 활동: 선택 교과 학습(한자, 컴퓨터, 환경, 생활외국어 그외), 교과 심화·보충 학습(연간 102시간) - 창의적 재량 활동: 연간 34시간 다. 특별 활동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	1. 가. 필수교과·도덕 및 특별활동의 내용의 취급 기본적으로는 종전의 「내용등의 취급법에 관한 공통적 사항」을 계승하고, 선택교과의 확대로부터 명칭이 「필수교과, 도덕 및 특별활동의 내용등의 취급」으로 바뀌었다. 필수 교과: 국어, 사회, 수학, 이과, 음악, 미술, 보건체육, 기술·가정, 외국어 나. 선택교과의 내용등의 취급 선택교과의 종류를 확대하고, 모든 학년에서 「필수교과 그 외 특별히 필요한 교과」의 모든 교과에 대해서 개설할 것. 연간: 70단위 시간의 범위내에서 각 학교에서 정할 것 선택교과의 수: 제2학년에서는 1교과 이상, 제3학년에서는 2교과 이상 내용: 생도의 특성등에 맞는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각 학교가 적절하게 정할 것

한 국	일 본
2. 시간(단위)배당 기준 음악과 연간 수업 주수(週數) : 34시간을 기준 1단위 시간: 45분을 상례 제1학년: 68시간 제2학년: 34시간 제3학년: 34시간	2. 수업시간등의 취급 음악과 연간 수업 주수(週數) : 35주 이상 1단위 시간: 50분을 상례로 한다. 제1학년: 45시간 제2학년: 35시간 제3학년: 35시간

한국과 일본의 음악과의 목표에 있어서는 음악활동을 통해서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는 본질을 충실하게 할 것을 목표로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영역면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한국은 이해과 활동(합창, 악기, 창작, 감상)으로, 일본은 표현(가창, 악기 창작고유의 것, 공통적인 것)과 감상으로 나뉘어 있다. 일본은 표현과 감상을 통해서 음악의 기본요소를 학습시키며 활동을 중요시하고 있다. 한국은 이해과 활동으로 나누고 양 영역은 관련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이해로써 이론의 존재를 중요하게 하고 다루고 있다. 그것은 아직 고등학교의 입시제도의 영향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이외의 고등학교는 입시제도가 아직 남아있다) 양국은 자국음악에 관심이 있고, 자국음악을 강조하며, 일본은 이번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3년을 통해서 1종류 이상의 악기를 체험시키도록 제시하고 있다.

<표 4> 한국과 일본의 음악과 목표의 비교

한 국	일 본
1. 목표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 2. 개정의 중점 사항 가.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음악과 교육 과정 나. 우리 음악 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악 교육 다. 활동 중심의 음악 교육 라.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음악 교육 마. 타당성 있는 음악과 평가	1. 목표 목표는 실제 음악활동에 있어서 상호적으로 관련되고, 상호 보완해서 완성되는 것 2. 「표현」: 가창, 악기, 창작고유의 것공통적인 것 3. 지도 내용의 경감: 독보지도의 정도를1#, 1b 정도의 조표로 하였다 4. 가창·감상교재: 특색있는 다양한 음악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공통교재를 나타내지 않는 것과 교재선택의 시점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5. 표현활동: 탄력화를 생각해서 학교와 생도의 실태에 맞는 표현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6. 악기지도: 전통악기를 3년 동안에 1종류 이상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자연음과 환경음을 의식적으로 듣고,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소학교와 고등학교와의 연관적 배려와 함께 기초적·기본적인 지도로 한층 구체화, 명확화를 생각한다.

3. 음악과 교육 과정의 목표비교

중학교 음악과의 일반 목표 비교

한국의 일반 목표는 일본의 일반목표에 비해서 세분화되어 있지만, 일본은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해서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내용면에서 양국은 음악적 활동을 통해서 음악성을 기르고 음악을 생활화 하며, 애호하는 마음을 가지며, 음악적 정서·정조(情操)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는 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목표는 음악의 이해면이 필수로 되어있지만 제6차의 교육과정의 목표면에서는 진술되어 있지 않았던 음악활동의 기초적인 능력과 음악의 이해가 새롭게 진술되어 있다.

<표 5> 중학교 음악과의 일반 목표 비교

한 국	일 본
다양한 악곡과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 가. 음악의 구성 요소를 이해한다. 나.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른다. 다.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른다.	표현 및 감상의 폭넓은 활동을 통해서, 음악을 사랑하는 심정을 육성하고 함께 음악에 대한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음악활동의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고, 풍부한 정조를 기른다.

한국과 일본의 음악과의 각 학년의 목표 비교

일반목표에서 한국은 세분화해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각 학년의 목표에 대해서 한국은 생략하고 있다. 일본은 일반목표를 간략하게 제시한 것에 비해서 1학년과 2학년 및 3학년의 목표를 (1)~(3)으로, 구성 및 내용에 대해서는 1학년과 같은 취지에서 제시하고 2·3학년에서는 1학년에서 학습한 것을 기반으로 발전성과 한층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교육과정의 지도요령에 기재하고 있다.

<표 6> 일본 음악과의 세부 목표

일	본
제1학년 목표	가. 음악활동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음과 음악에의 흥미·관심을 기르고, 음악으로 생활이 밝고,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나. 음악표현의 풍부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기초적인 표현의 기능을 몸에 익혀,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 다양한 음악에 흥미·관심을 가지고, 폭넓게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제2학년 및 제3학년 목표	가. 음악활동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음과 음악에의 흥미·관심을 높이고, 음악으로 생활을 밝게 풍부하게 하고, 생애를 거쳐서 음악에 친숙하는 태도를 기른다. 나. 악곡구성의 풍부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의 기능을 기르고,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 다. 음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깊게, 폭넓게 감상하는 능력을 높인다.

4. 음악과 교육 과정의 내용 비교

제1학년의 내용 「이해」와 「표현」의 비교

한국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이해와 표현(가창, 악기, 창작)으로 제시하였던 영역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해와 활동의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해의 영역에서는 음악활동에 필요한 음악기본이론·개념이 선정되어 있고 학습해야 할 음악요소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는 음악개념은 독립적으로도, 상호관련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추어서 수준을 고려하고, 실현할 수 있는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층 더 깊게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음악을 체험중심의 학습형태 뿐만이 아니라 지적, 이론적 사고(思考)도 중시하는 이해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7> 제1학년의 내용 「이해」와 「표현」의 비교

한 국
1. 리듬 • 2/2, 6/4 박자. • 여러 가지 기본장단과 변형장단 • 여러 가지 박자와 장단의 리듬형 2. 가락 • 여러 가지조에 따른 가락의 구성 • 라장조/ 나단조/ 마단조 • 민요 음계 • 시김새 3. 화성 • 여러 성부의 어울림 • 장·단조의 주요 3화음과 V₇화음 • 가락과 화음 간의 관계 4. 형식 • 가락의 변화 • 소나타 형식 • 긴 자진 형식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형식 • 전통 가곡/ 시조 등의 성악곡 • 협주곡/ 연례악 등의 기악곡 5. 셈여림 • 악곡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셈여림의 변화 6. 빠르기 • 악곡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빠르기의 변화 7. 음색 • 다양한 음원의 크기/ 모양/ 재료에 의한 소리 변화 • 음역에 따른 목소리 • 여러 가지 악기 소리의 조화 • 악곡의 성격과 음색의 관계 • 연주 형태에 따른 소리의 조화(협주)

일본은 한국의 영역과 다르게 표현과 감상으로 나뉘고 전 영역이 활동으로, 활동 속에 음악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학생이 학습하게 될 가창, 악기, 창작의 각 활동에 관련된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실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기능이 필요하고 그 기능학습은 학생의 음악에 대한 감성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지역과 학교의 실태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음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공통교재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자국의 음악·전통음악을 소중히 하는 태도를 6차 교육과정보다 중시하고 있다. 내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항목을 각각 자세하게 설명을 제시해주고 있다. 교재선택의 관점에서는 가창이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일 본

1. 표현활동을 통해서 다음의 사항을 지도 한다.
 - 가. 가사의 내용과 악상을 느끼고 가창 표현을 생각한다.
 - 나. 곡장르에 맞는 발성에 의해, 말표현 에 주의를 기우려서 부른다.
 - 다. 악기의 기초적인 연주를 몸에 익혀, 아름다운 음색을 생각해서 표현한다.
 - 라. 성부의 역할을 느끼고 전체의 음향 에 기우려서 합창과 합주를 한다.
 - 마. 짧은 가사에 가락을 붙이거나, 악기를 위한 간단한 가락을 만들면서 가창과 악기로 표현한다.
 - 바. 표현한 이미지와 악상을 가지고, 다 양한 음소재를 사용해서 자유로운 발상에 의한 즉흥적인 표현이나 창작을 한다.
 - 사. 음색, 리듬, 가락, 화성을 포함한 음 과 음과의 상호 관계, 형식 등의 움직임 을 느끼면서 표현하도록 한다.
 - 아. 속도와 강약에 따라서 악상의 변화를 느끼면서 표현하도록 한다.
2. 표현 소재에는 다음 나타난 것으로 한다.
 - 가. 자국과 세계의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는 작품, 자국의 민요 및 세계의 민요 중 에서 쉽고 친숙한 것으로 택한다.
 - 나. 가창 소재에는 각 학교, 생도의 태도를 고려해서, 다음의 관점을 포함 한다.
 - (가) 일본에서 오랫동안 불려져서 친숙 것
 - (나) 일본의 자연과 사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 (다) 일본의 문화와 일본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제1학년의 「활동」과 「감상」의 비교

한국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의 표현영역과 감상영역이 “활동”이라는 영역에 포함되고, 가창, 악기, 창작, 감상의 4가지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음악활동이라는 관점으로 하나의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4가지 영역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별하여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이 서로관계에 의해서 그 특성을 살려서 나타내는 것을 활동이라는 관점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국의 활동에서는 표현활동을 하고, 학생들간의 평가, 자기평가를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표 8> 제1학년의 「활동」과 「감상」의 비교

한	국
1. 가창 ● 바른 자세·호흡, 정확한 발음, 무리 없는 발성으로 부른다. ● 악곡을 듣고 부른다. ●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보고 부른다. ● 악곡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부른다. ● 악곡의 특징을 살려 외어 부른다. ● 기악 반주에 맞추어 표현력 있게 부른다. ● 독창, 중창, 합창을 지휘한다.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부른다. ● 노래를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한다. 2. 기악 ● 바른 자세·주법, 좋은 음색으로 연주한다. ●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보고 연주한다. ● 악곡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연주한다. ● 악곡의 특징을 살려 외워 연주한다. ● 여러 유형의 반주를 한다. ●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여 독주, 중주, 합주를 지휘한다.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연주한다. ● 연주를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한다.	

3. 창작

- 리듬과 가락을 만들어 즉흥 연주한다.
- 배운 곡을 변화시킨다.
- 가사에 어울리는 곡을 만든다.
-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간단한 형식의 곡을 만들어 적는다.
- 곡에 어울리는 반주를 만든다.
- 악곡의 특징에 맞게 악기와 목소리를 선택하여 곡을 만든다.
- 만든 곡을 발표한다.
- 만든 곡을 듣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한다.

4. 감상

- 악곡의 성격과 구성 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는다.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을 이해하여 듣는다.
- 악곡의 특징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을 한다.
- 다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조화를 이해하여 듣는다.
- 다양한 악곡의 연주 형태를 구별하며 듣는다(협주).
- 우리 나라 가곡, 시조 등 성악곡과 협주곡, 연례악 등의 기악곡을 듣는다.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는다.
- 생활 속에서의 음악의 역할을 이해한다(의식과 음악).
- 음악을 듣고 평한다.
- 바른 감상 태도를 가진다.

일본은 한국의 활동영역에 대한 부분이 감상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감상을 하면서 청취능력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나 지역의 특색을 살린 학년 목표의 표현 내용과의 관련을 충분히 고려하는 감상이다. 음악의 배경이 되는 문화·역사 등과 관련시켜서 들으며, 음악과 인간생활과의 깊은 관계, 음악의 좋은점, 아름다움, 소중함 등을 이해시키도록 제시하고 있다.

일 본

1. 감상활동을 통해서, 다음 사항을 지도한다.

가. 가창과 악기의 음색, 리듬, 가락, 화성을 포함한 음과 음의 상호 관계, 형식 등의 움직임과 그것들에 의해 생겨나는 악곡의 분위기와 악상을 느끼면서 듣는다.

나. 속도와 강약의 움직임 및 그것들에 의해 생겨나는 악곡의 분위기와 악상의 변화를 느끼면서 듣는다.

다. 일본의 음악 및 세계의 민족음악에 있어서 악기의 음색·연주와 가창 표현의 특징으로부터 음악의 다양성을 느끼면서 듣는다.

라. 음악을 그 배경이 되는 문화·역사 등을 관련시켜서 듣는다.

2. 감상의 소재와 일본 및 세계고전에서 현대까지의 작품, 향토의 전통음악 및 세계의 민요 음악을 취급

5. 음악과 교육 과정의 「음악과의 평가」의 비교

한국의 평가는 교육과정의 이해 및 활동에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 제시한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평가의 결과는 학습지도의 계획과 지도 방법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해에 대한 평가는 실음으로 시행하고, 필기평가가 아니고 활동을 통해서 평가한다. 수업 후 학생의 자기평가, 학생들간의 상호평가, 교사에 의한 평가 등 다양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유의하도록 제시되었고, 결과뿐만 아니라 지도의 과정에 있어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는 학습지도요령(음악편)에서는 평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총칙편의 해설에는 평가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을 하고 있다. 교육과정 평가의 대상은 교육과정의 모든 것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교육과정의 편성에서부터 각 교과, 도덕, 특별활동 및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에 있어서 지도계획, 지도방법 등에 달한다. 또한 교육과정을 편성, 실시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상 창작된 것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중요

한 것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평가는 학기말과 학년 말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서부터 항상 유의해서 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평가의 관점으로는

- 학습지도요령을 위시하는 지방 및 교육위원회가 나타낸 지침(指針)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거기에 나타난 기준을 만족시켰는지.
- 학교의 교육목표가 학교의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서 충분히 추구되었는지, 성과를 올렸는지.
- 학생의 실태에 적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편성, 실시되었는지.
- 교직원과 시설·설비 등의 조건과 적합한 교육과정이 편성, 실시되었는지.
-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었는지.

평가의 방법 :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전교직원의 공통이해를 생각해서 적절한 평가의 조직 하에서 협력해서 조직적으로 추진할 것.
- 교육과정의 평가를 학교의 연간계획의 속에 넣어서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
- 가능한 한 다면적(多面的)이고 계속적인 평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할 것
- 학생들이 학습에 몰두하는 모습과 달라진 모습들의 상황, 학습의 성과 등, 다양한 평가 자료를 기본으로 교육활동의 상황을 파악할 것.

<표 8> 평가

한	국
1. 평가는 교육 과정의 목표, 내용, 과정에 부합되도록 하며, 전 영역에 대한평가를 균형 있게 하도록 한다. 2. 평가 목적과 학년의 수준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평가 방법과 도구를 선택한다. 3. 이해 영역은 실음 위주로 활동 영역과 관련지어 평가한다. 4. 활동 영역의 평가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중학교의 가창에서는 자세, 발성, 리듬, 음정, 프레이징 등 전체적으로 음악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능력 및 태도를 평가한다. 나. 중학교의 기악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악기를 선택하여 자세, 주법, 리듬, 음정, 음색 등 전체적으로 음악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능력 및 태도를 평가하며, 합주는 전체적인 소리의 조화에 유의하여 평가한다. 다. 중학교의 창작에서는 음악 개념에 대한 이해, 표현력, 창의력, 기보력 등을 평가한다. 라. 중학교의 감상에서는 음악을 듣고 발표하거나, 느낌이나 생각을 감상문으로 평가한다. 또, 음악 작품에 대한 단편적 지식보다는 음악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유의하여 평가한다. 5. 음악에 대한 태도는 학교 내외에서의 음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평가한다. 6. 실기 평가, 관찰, 학생의 자기 평가, 학생 간의 상호 평가,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평가 방법과 도구를 활용한다. 7. 평가의 결과는 학습 지도 계획과 지도 방법 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Ⅲ. 결론 및 제언

결론

비교하고 고찰한 부분을 한국교육과정의 앞으로의 과제로서 또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학교교육의 이상적인 것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을 생각해 보았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국의 기본 학제 및 교육과정의 변천, 양국의 중학교의 교육 목표 및 운영 지침을 살펴보고 한국의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서」의 음악과 일본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음악편을 구성 순서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양국은 공통적으로 아메리칸식 교육제도의 영향을 받았고, 민주적 교육이념과 교육제도에 의한 교육정책에 따르고 있다. 양국의 음악교육의 바탕에는 아메리카 교육관의 영향이 있다. 교육제도에서 양국은 1950년대에 6·3·3·4학제가 정착되었고, 장래에 필요한 건강하고 원만한 정서와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게 될 인간상의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양국 모두 음악교과는 필수교과, 시간의 배당에서는 주1~2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점에서는 같다. 19세기말 이후 근대적인 음악교육과정의 변천의 면으로 비교하면, 일본은 한국보다 조금 일찍 서양의 교육제도에 의한 교육제도를 확립하고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그 효능을 실용주의에 두었다. 이후 아메리카의 교육과정으로부터 시작되는 서양음악교육을 책임적으로 다양한 음악교육을 수용하고 일본의 음악환경 및 제도에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 문부성은 연구를 계속해 왔다. 현재는 전통음악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근대의 한국의 음악교육은 전쟁이 계속되는 역사적인 과정 중에서 전통음악의 단절과 서양음악이 왜곡 수용(受容)되어서 우리나라의 독립음악교육이 늦게 되는 등 영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음악 교육사적인 배경의 영향은 1945년 해방된 이후에도 조금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과정 해설서(음악)와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음악)의 구성에는, 개정의 취지, 음악과의 목표, 지도 내용은 공통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음악과의 방법과 평가 및 음악과 교수학습계획과 지도」라는 내용이 되어 있지만, 일본에서는 「지도계획의 작성과 내용의 취급」으로 되어 있는 등 양국의 차이를 볼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개정 중에서 그 편성운영방침을 보면 한국은 중앙집권교육과정으로부터 지방분권화를 시도했다. 일본의 교육과정은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한국도 완전한 지방 분권형의 교육과정은 되지 않았다.
2. 음악과의 목표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음악의 본질을 충실하게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음악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목표의 기술에 있어서, 한국은 각 학년의 목표는 없고 일반목표를 세분화하고 있다. 일본의 일반목표는 간략하게 있지만 제1학년과 제2학년 및 제3학년에 나누어서 목표를 기술하고 있다.
3. 교육의 내용영역에서는, 한국은 「이해와 활동」으로, 일본은 「표현과 감상」으로 나누고 있다. 양국은 실제의 음악활동과의 관련을 계획하고, 지도는 일관성을 가지고 음악활동을 하도록 되어있다.
4. 제7차 개정 중에 양국의 특징으로 보이는 점에서는, 한국의 경우 제7차 개정부터 필수악곡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도 이번 개정의 음악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공통교재를 나타내지 않는 것」(중학교)과 「공통선택의 관점 등을 나타내는 것」 만으로 했다. 그러므로 학교의 창의적인 고안을 살려서 학생의 실태 등에 따라서 특색 있고 다양한 음악활동을 전개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5. 감상의 영역에 있어서, 한국은 각 장르별로 제시하고 음악회에서의 태도 등을 강조했다. 일본은 가창(중학교)의 경우와 같이 공통 교재곡을 이번 개정부터 나타내지 않기로 했기에 교사 각자의 특징이 있는 수업이 기대되고 있다.
6. 한국은 「음악방법」, 일본에서는 「지도계획의 작성과 내용의 취급법」에

공통으로 탄력성 있는, 통합적인 지도, 연계성의 고려, 전통음악 등에 관해서도 표시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의 교육과정에서 각국의 음악을 중시하고 있다. 한국은 이전부터 전통음악 중에서 필수악기를 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번의 교육과정부터 일본전통악기를 3년 동안 한가지 이상 체험 할 수 있도록 나타내고 있다.

7. 평가에 있어서, 한국은 평가가 교육과정의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연계성과 타당성 등이 있는 평가, 평가의 결과의 활동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학습지도요령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문부성으로부터 출판되고 있는 문서와 교사의 지도서 등에 평가의 연구와 해설이 되어 있다.
8. 위의 글 이외에 한국은 교수(敎授)학습계획과 음악과의 신(新)구(舊) 교육과정을 교육부로부터 비교해서 나타내고 있다.

제 언

한국의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바람직한 음악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 문제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1. 한국에서는 제7차 개정 음악교육과정에서 필수악곡을 나타내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필수악곡의 선정을 위한 관점을 나타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전통음악의 분량을 증가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전통음악에 대한 교사의 연구와 악기 및 악기와 접할 기회의 증가, 국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전통음악을 학생들이 체험하는 것과 같이 전통음악과 국제화에 연관시키는 것도 세계화의 시대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3. 이해영역과 활동영역으로 나뉘어 있지만, 실제의 수업에서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능력의 이해와 음악활동을 통합, 관련시켜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학교교육의 「본질화」의 흐름 중에서 음악을 체험하는 활동이 되지 않음

면 안 된다. 또한 학생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음악수업이 되도록 학교와 교사 각각 교수(教授)학습방법의 연구를 연속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5. 음악수업의 교육과정의 중에서 폭 넓은 음악, 다양한 분야, 다양한 나라의 음악, 다양한 음악소재 등을 도입시킨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함께 음악교육과정의 개선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음악교육의 본연의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의 음악교육과정을 일본의 음악교육과정의 관계와 비교해서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다른 나라와의 비교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참고자료

한 국

교육부 (1998). 『음악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교육부 (1998). 『중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교육부 (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V)』 -체육음악미술-.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일 본

文部省編 (1996). 文部時報 (NO.1439) 平成8년

文部省編 (1997). 文部時報 (NO.1451) 平成9년

文部省 (1998). 中學校學習指導要領 解説-音楽編. 발행教育藝術社, 平成10년 12월.

文部省 中學校學習要領 解説-總則編. 平成10년 12월

大藏省印刷局 (1998). 中學校學習指導要領 平成10년12월 17일

文部省初等中等教育局 (2000). 教科書制度의 概要. 平成12년 3월.

참 고 문 헌

한 국

- 차형균, 양기승 (1982). 음악교육과의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 전주: 전주대학교.
- 許菽 (1991). 교육과정의 의미와 교수활동의 이론. 1991년 인천: 인천교육대학교.
- 이흥수 (1993).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신계휴 (1997).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 인천: 인천교육대학교. 인천교육대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

일 본

- 浜野政雄 (1967). 音樂教育學概説. 昭和42年 音楽之友社.
- 岩井正浩 (1978). 資料日本音楽教育小史. 青葉圖書.
- 河口道郎 (1993). 音楽教育の理論과歴史. 音楽之友社.
- 木村信之 (1993). 昭和戦後音楽教育史. 音楽之友社.

유럽과 미국

- H.F.Abeles, C.R.Hoffer & R.H.Klotman (1997). 음악교육의 기초. 방금주 역. 삼호출판사.
- Charles Leonhard & Robert W.House (1992). 음악교육의 기초와 원리. 안미자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ABSTRACT

The Comparative Study on Music and its Curriculum between Korea and Japan

- Centering on the Music Education Program at a Junior High School -

Park, Shin-mee

The purpose of research: The music education as a part of art education is quite important for the formation of personality and its curriculum, which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teaching plan, determines the quality of music education. Besides, the target of music education supports the liberal education and brings emotion cultivation through the ability to express or appreciate. If curricula contain the professional knowledge, which does not correspond to the level of middle school education, and deal with fragmentary lessons, the original goal of music education cannot be achieved at all. In this respect, the contents of musical education, such as the problem of what to teach or how to educate, are really important. As the music education program is generally based on cultural backgrounds, there is an interactive cor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For this reason, my thesis tries to compare the Japanese guidelines for the teaching of the curriculum with the Korean ones on the curriculum in order to create a more effective curriculum for the music education.

The research method: The main focus is on the mutual comparison by means of related references to the revised meaning of music education, the purpose, contents, and formulation of an instruction plan. Another approach method indicates the several alternatives to present problems in collaboration with analyzing the educational system.

Conclusion: Although both Korea and Japan absolutely adopted the Western music after the War, mor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urn one's eyes to the music of their own countries since 2002. The trend of the Korean music education is involved in cultivating creative capabilities in order to be well prepared for the 21st century society on the basis of philosophical theories of Confucius. Moreover, students themselves are supposed to take part in each class the autonomy of schools and communities has been expanded in terms of the organization of a curriculum and its adjustment. On the other hand, with the curriculum proposal beginning in the 2002 fiscal year, the revised Japanese curriculum is almost the same as the Korean. In other words, active education (five-day classes a week, updated contents, more emphasis on individuality, and more elastic regulations) is much more popular through promoting "the living power."